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7권 제2호, 2005
<연구논문>

J. Kor. Soc. Cloth. Ind.
Vol. 7, No. 2, pp.179-186(2005)

여자 중 · 고등학생의 교복평가와 교복변형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

정혜원[1)] · 정인순[2)]
1)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2) 인하대학교 가정교육과

Evaluative Criteria and Modification of Girls' School Uniforms
- Focused on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Incheon -

Hae-Won Chung[1)] and In-Soun Jeoung[2)]
1)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2)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Abstract : Girls' school uniform evaluative criteria and their uniform modification were investigated.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from 579 middle and high school girls living in Incheon during the fall of 2003. The uniform evaluative criteria consisted of five dimensions: aesthetics, comfort, economy, management, and status concealment factor. The uniform evaluative criteria were used to cluster the students into five groups: economic, practical, aesthetic, negative, and active. The uniform modifications were investigated in regard to sleeve length, sleeve width, breast width, jacket length, skirt length, hip width, and waist width. The aesthetic and the active groups intended to modify uniforms less in sleeve length and skirt length than the other three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uniform modifications among demographics: school years, height, weight, spending money, satisfaction/dissatisfaction with spending money, and clothing expenditures.

Key words : girls' school uniform, evaluative criteria, uniform modification

1. 서 론

중·고등학생은 대부분 13세부터 18세의 연령으로 아동기를 벗어나 성년으로 옮아가는 사이의 청소년에 해당한다.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장속도가 매우 크고 현저한 성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지만 아직 자아개념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하여 쉽게 흥분하고 동요하게 된다. 또한 이성에 대한 관심과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외모와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 청소년은 동년집단에의 소속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동년집단과의 동조를 인정받으려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의복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므로 청소년에게 의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낼 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학교 내외에서의 과외수업으로 등교시 착용한 교복을 하루종일 착용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교복착용은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게 되며, 학생신분의 노출로 인하여 학생신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비행행동이 줄어드는 등 준법정신을 갖게 될 뿐 아니라(이인자, 1992),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등 도덕적 자아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의복의 패션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지금의 청소년층은 우리나라가 경제안정을 이룬 이후의 세대로 물질적 풍요를 누려 소비지향적이고, 과거의 억압적인 생활태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성장되었다. 그리하여 틀에 박힌 교복을 착용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더 날씬하고 키가 커 보이도록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변형하여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교복변형은 교복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중·고등학교의 용의 복장규정에 교복변형을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교복변형을 적발당하면 학생들에게 처벌이 가해지며 이는 결국 자아개념의 손상, 교사들로부터의 신뢰감 손상 등 부정적 교육효과를 야기할 뿐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성장기의 학생들의 신체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중앙일보, 2001). 중·고등학생의 교복규범위반은 규제보다는 그 원인을 발견하여 문제해결의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

Corresponding author; Hae-Won Chung
Tel. +82-32-860-8100, Fax. +82-32-865-8130
E-mail: hwchung@inha.ac.kr

생들이 많은 시간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복변형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교복변형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빈번히 일어나므로 여자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변형이 규율 및 학생지도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자 중・고등학생이 교복을 변형하는 원인을 알아보고자 교복평가와 관련하여 조사하고, 학생들의 교복변형을 줄일 수 있도록 교복제작시 고려할 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첫째 인천 지역의 여자 중・고등학생이 자신들이 착용하는 교복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고, 둘째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변형행동을 알아보며, 셋째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평가와 교복변형의 관계 및 교복변형 행동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의복평가

의복에 대한 평가는 구입시 착용목적에 맞은 의복의 선택을 위한 평가와 의복을 착용하면서 기대치에 부응하는 정도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착용하는 의복에 대한 만족여부와 그 후에 의복을 구입할 때에 참고하는 자료가 되는 것으로 의복의 객관적인 속성과 주관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김미영・이은영(1991)은 의복평가기준으로 추구이점 수준, 구성요소 수준, 중간연결 수준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 의복평가의 추구이점 수준에는 유행성, 품위, 상표의 명성, 관리의 용이성, 편안함, 내구성, 착용용도의 다양성, 가격이 포함되며, 구성요소 수준에는 스타일, 색, 무늬, 섬유, 조직, 재단과 봉재, 부속품, 가공방법, 치수가 포함되며, 중간적 연결수준에는 보온성, 신축성, 마찰강도 등의 감각적 평가기준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한편 의복평가기준의 차원으로는 유행성차원, 신분상징성차원, 실용성차원, 경제적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여의재・이영선(1996)은 소비자들의 의복평가차원으로는 맞음성, 유용성, 관리의 용이성, 변형성, 착용/봉제성, 심미성 등으로 분류되며, 특히 의복의 착용과정에서 관리 및 세탁의 편이성이 만족도 및 재구매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어떤 차원보다도 우선적으로 중요시 되는 것을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밝혔다. 또한 심미성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재구매 의도와는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강은미・박은주(2003)는 의류제품 구매시 소비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류제품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 요인이라 보고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의복평가는 주관적이며, 경험적이기 때문에 인구통계적변수 등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의복평가는 구입시 뿐 아니라 착용시에도 이루어지며 소비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청소년들은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착용하는 교복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되도록 교복을 변형할 것으로 사료된다.

2.2.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 및 변형

우리나라에서 교복을 착용하게된 것은 서양선교사에 의하여 설립된 이화학당에서 1886년부터 시작되었다. 여학생 교복의 형태도 시대상을 반영하여 초기에는 치마저고리의 형태이던 것이 1940년대에는 전투태세를 갖춘 바지 또는 스커트와 자켓으로, 근 1세기 동안은 엄격한 형태의 교복착용을 통하여 학생에게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학교로써는 손쉽게 학생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교복의 형태는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여론과 함께 획일성을 탈피하고 개성을 존중함으로써 창의성을 높이고자 1982년에는 교복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자유복을 착용하게끔 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어렵게 되었고, 사치성 조장과 학부모에게 의복비 증가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소득계층이 가시화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시 1985년에 교복착용을 각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일임하면서 다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후에는 오히려 교복보다 자유복을 착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폐단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교육부에서 교복착용을 적극 권장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 학교의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박정희, 1998).

여자 중・고등학생은 청소년기의 특징인 자신이 돋보이도록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관심있는 동년배 집단에 속하려는 욕구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생활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학교에서 착용하는 의복에 대한 동조성의 하나로 교복변형을 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는 이와같은 교복변형을 금지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상당수의 학생이 교복을 변형하기 위하여 수선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으며 또한 조사보고 되었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교복변형을 조사한 결과 박정희(1998)는 82.3%. 이혜경(2000)은 52.7%, 이소은(2001)은 64.9%, 권숙희・김혜정(2002)은 67.3%의 학생이 교복변형 경험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권숙희・김혜정(2002)은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변형에 관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67.3%가 교복을 변형한 경험이 있었으며, 치수에 대한 불만족이 교복변형의 중요한 원인이며, 이는 활동에도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였다. 황진숙 외(2002)는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이미지 선호와 교복변형 행동의 비교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복변형 연구에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교복변형이 많았으며, 교복이미지로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할수록 교복변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복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남학생은 상의품과 바지통을 줄였으며, 여학생은 상의 품을

좁고 상의 소매를 짧게 변형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명희·송은영(2002)은 청소년의 자기 이미지와 교복변형과의 관계연구에서 교복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여자 중·고등학생은 교복변형을 해 본적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자신을 개성적, 현대적이며 유행에 민감한 이미지로 평가하였다.

고애란 외(1999)는 여고생의 교복관련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 관련연구에서 교복은 미적, 활동성과 맞음새에서 불만족이 많이 나타났으며, 교복변형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스커트 길이, 스커트 폭, 재킷의 품과 길이의 순이었다. 또한 교복변형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자기 효능감, 신체이미지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의 심리적 특성은 교복태도 및 의복태도와는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나 교복변형 행동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등 교복 변형요인이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로부터 중·고등학생들은 그들의 일과 중 가장 많은시간 동안 착용하고 지내는 교복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교복변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교복평가에 따른 교복변형과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한 평가, 교복변형 행동,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복에 대한 평가는 선행연구(박혜선·김화순, 1998; 이상희 외, 1997)에서 사용된 문항을 발췌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 보완된 1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였다. 교복 변형행동에 관하여서는 소매길이, 소매통, 상의허리둘레, 상의길이, 치마길이, 치마엉덩이둘레의 변형조사에서 많이 늘임 1점, 약간 늘임 2점, 변형안함 3점, 약간 줄임 4점, 많이 줄임 5점으로 하였으며, 교복변형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변형시기를 조사하였다. 교복과 자유복 중 등교시 착용을 희망하는 복장도 조사하였다.

인구통계변인으로는 학년, 몸무게, 키, 부모님 직업, 한달 용돈, 용돈에 대한 만족여부, 학업성취도, 월평균의 옷, 모자, 신발을 포함한 의류 구입비를 조사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 : 본 연구는 2003년 9월에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9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불충분한 15부를 제외한 579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선정 시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입시 준비로 성실한 답변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여 대상자 선정에 제외하였으며 중학생수와 고등학생 수가 같게 되도록 표집하였다. 학년에 따른 분포는 중학교 1학년 98명(16.9%), 2학년 95명(16.5%), 3학년 98명(16.9%), 고등학교 1학년 171명(29.5%), 2학년 117명(20.2%)이었다.

자료분석 : 본 연구의 분석처리를 위해서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교복의 평가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 평가요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교복평가에 따른 유형화를 위해서는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복 평가유형에서의 교복 변형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서는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특성에 따른 교복변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교복을 부위별로 줄인 학생수만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교복평가요인

여자 중·고등학생들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한 평가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과 배리맥스 회전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그 중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5개로 총 분산의 67.8%를 설명한다. 요인 1은 디자인이 우리감각에 맞는다, 디자인이 유행에 맞는다, 형태가 마음에 든다, 학교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해 준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심미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에 대해 17.3%의 설명력을 가졌다. 요인2는 활동하기 편하다, 입었을 때 편안하다, 추위나 더위의 적응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쾌적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에 대해 16.0%의 설명력을 가졌다.

요인3은 여러번 세탁해도 옷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오랫동안 입어도 보풀이 생기지 않는다, 품질과 비교한 가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내구성과 가격을 포함하여 경제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에 대해 13.2%의 설명력을 가졌다. 요인4는 쉽게 때가 타지 않는다, 구김이 잘 가지 않는다의 세탁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관리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에 대해 10.7%의 설명력을 가졌다. 요인5는 아침마다 옷 선택의 고민이 없어 좋다,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지 않아 좋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은폐성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해 10.6%의 설명력을 가졌다. 각 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한 Cronbach's α 값은 0.85, 0.77, 0.72, 0.70, 0.67 이었다.

4.2.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 평가태도의 차이

여자중학생과 여자고등학생의 교복평가태도 요인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t-test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평가요인별 점수는 중학생의 심미성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으며, 고등학생의 은폐성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다. 교복평가에 대한 점수는 중학생은 심미성, 관리성, 쾌적성, 경제성, 은폐성의 순으로 높아졌으며, 고등학생은 심미성, 쾌적성, 관리성, 경제성, 은폐성의 순으로 높아져서, 요인별 점수의 서열은 비슷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쾌적성

Table 1. 교복평가요인

요인명	교복평가항목	요인부하량	고유값	분산	신뢰도계수(α)
요인1. 심미성	디자인이 우리 감각에 맞는다	.871			
	디자인이 유행에 맞는다	.863	2.58	17.3	0.85
	형태가 마음에 든다	.768			
	학교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해 준다	.485			
요인2. 쾌적성	활동하기 편하다	.873			
	입었을 때 편안하다	.861	2.47	16.0	0.77
	추위나 더위에 잘 적응된다	.612			
요인3. 경제성	여러번 세탁해도 옷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802			
	오랫동안 입어도 보풀이 생기지 않는다	.785	2.19	13.2	0.72
	품질과 비교해 가격에 만족한다	.605			
요인4. 관리성	쉽게 때가 타지 않는다	.827			
	구김이 잘 가지 않는다	.619	1.64	10.7	0.70
	세탁하기 쉽다	.424			
요인5. 은폐성	아침마다 옷 선택의 고민이 없어 좋다	.849	1.67	10.6	0.67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지 않아 좋다	.813			

Table 2.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평가

교복만족	중학생	고등학생	t-value
심미성	2.12	2.51	-7.00***
쾌적성	2.56	2.63	.11
경제성	2.88	2.75	3.67***
관리성	2.36	2.65	-2.78**
은폐성	3.43	3.76	-2.88**

***p>0.001,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을 제외한 심미성, 경제성, 관리성, 은폐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심미성, 관리성, 은폐성의 착용태도 점수가 더 낮은데 이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교복을 착용하지 않다가 중학교에 진학하여 교복을 착용하며 교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성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평가 점수가 더 높은데 이는 중학생은 내구적인 성질의 형태변형, 보풀 등과 가격에 대한 이해 또는 관심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복 착용태도에 대한 점수는 은폐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점 이하로 매우 낮아 현재 착용하는 교복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교복에 대한 평가점수는 낮으나 등교시 희망하는 착용복이 교복인가, 또는 사복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설문결과를 Fig. 1에 나타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은 교복착용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낮으며, 고등학교 1학년 까지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복착용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은 85.5%로 고등학교 1학년의 86.5%에 비하여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중학교 2학년 이후에는 많은 학생이 교복착용을 선호하면서도 교복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으므로 현재 착용하는 교복에 대한 심미성, 쾌적성, 경제성, 관리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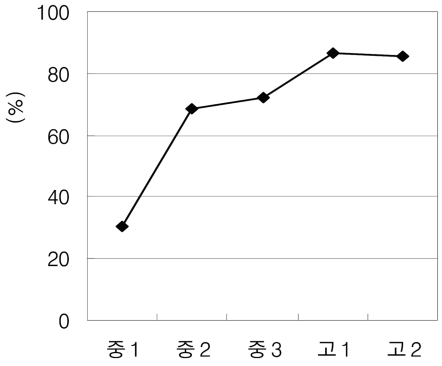

Fig. 1. 학년별 교복착용 희망 비율.

4.3. 교복평가 태도에 따른 유형화

조사대상자를 교복 평가유형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구해진 요인점수로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집단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5개로 구분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집단I은 경제성의 점수가 가장 높으며, 심미성도 비교적 높으나 쾌적성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으므로 경제적 착용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집단II는 관리성과 은폐성의 착용태도가 가장 높으나 심미성이 가장 낮아 실용적태도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III은 심미성의 착용태도가 가장 높아 심미적태도집단으로 명명하였고, 집단IV는 착용태도요인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요인이 없으며, 은폐성요인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가지므로 부정적태도집단으로 명명하였고, 집단V는 쾌적성이 가장 높으며, 경제성과 은폐성도 비교적 높으나 관리성 점수가 낮아 활동적태도집단으로 명명하였다.

4.4. 교복변형

본 연구에서 조사된 여자 중·고등학생들은 앞의 결과와 같이 현재 착용하는 교복에 대한 평가점수가 매우 낮으므로 이를

Table 3. 교복평가태도에 대한 유형

요 인	집단 I 경제적(N=88)	집단 II 실용적(N=120)	집단 III 심미적(N=138)	집단 IV 부정적(N=116)	집단 V 활동적(N=101)	F값
심미성	.55 C[a]	-.76 A	.88 D	-.65A	-.03 B	112.20***
쾌적성	-1.03 A	.02 C	.38 D	-.49 B	.92 E	92.98***
경제성	1.00 D	-.02 B	-.48 A	-.68 A	.59 C	82.58***
관리성	-.04 B	1.09 D	.27 C	-.73 A	-.79 A	136.46***
은폐성	-.06 B	.49 C	-.18 B	-.62 A	.42 C	28.60***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a]Duncan테스트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다른 문자로 표시

Table 4. 교복평가태도 유형과 교복 변형

부 위	경제적	실용적	심미적	부정적	활동적	F값
소매길이	3.43 A[a]	3.30 AB	3.08 C	3.21ABC	3.10 BC	2.703*
소매통	3.63	3.65	3.47	3.60	3.43	1.300
상의 품	3.67	3.65	3.59	3.62	3.54	.893
상의길이	3.66	3.59	3.58	3.64	3.37	1.443
치마길이	3.41 A	3.27 AB	3.18 B	3.47A	3.17 B	3.223*
허리둘레	3.39	3.33	3.24	3.46	3.25	1.457
치마품	3.50	3.64	3.48	3.67	3.37	2.041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a]Duncan테스트 결과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다른 문자로 표시

본인의 취향에 따라 부분적인 변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조사대상자의 교복평가 태도 유형이 다른 다섯 집단의 교복 변형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현재 착용하는 교복의 심미적 측면과 활동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는 집단은 교복의 모든 부위에서 줄이는 수선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며, 다른 집단에 비하여 심미적 집단과 활동적 집단이 유의적으로 소매길이와 치마길이의 줄임 비율이 낮은 데, 이는 심미적 집단은 현재 착용하는 교복의 심미적인 면에서 다른 집단에 비하여 평가 점수가 높으며, 활동적 집단은 편하게 활동할 수 있기 위하여서 품을 좁히거나 길이를 줄이는 등의 수선 비율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착용하는 교복이 경제적이라는 집단은 경제성 이외의 다른 측면이 더욱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므로, 추가 지출이 있더라도 심미성을 위하여 몸에 잘 맞도록 교복을 줄이므로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소매길이와 치마길이의 변형비율이 높아 유의차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교복의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인 집단도 줄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성장은 12-15세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 키와 높이 항목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10대 후반부터 성장이 감속하며 체중의 완만한 증가로 성숙기로 이어진다고 하였다(김혜경 외, 1997). 그러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성장 발육 정도가 다르고 생활 태도에서 차이가 나므로 인구통계특성에 따라 교복을 줄이는 변형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분리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 Table 6과 같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키와 몸무게 간의 상관성은 중학생 0.396**, 고등학생 0.306**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키와 몸무게의 단순 회귀식은

키(중학생) = 1.164 + 0.547 × 몸무게
키(고등학생) = 1.830 + 0.366 × 몸무게

로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몸무게와 함께 키의 성장이 크지만, 고등학생은 키보다 몸무게의 증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산업규격(KS K0051)에서 의복의 치수 중 교복은 청소년복에 해당되므로 상의는 키-가슴둘레, 하의는 키-허리둘레를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키는 5 cm,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는 3 cm씩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시판되고 있는 교복치수는 일반적으로 상의는 키에 따라 가슴둘레, 하의는 키에 따라 허리둘레 한 치수만을 일률적으로 변화시켜 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상의는 165 cm-91 cm, 160-88, 하의는 165-74, 160-71 등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성장속도가 매우 다른 청소년기의 교복치수는 실제 청소년의 체형과 크게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 진다.

중학생의 교복변형(Table 5)은 상의 품과 상의길이(33.7%)에서 가장 많았으며, 치마엉덩이둘레(31.6%), 치마길이(29.8 %), 소매통(28.9%), 허리둘레(26.8%), 소매길이(21.0%)의 순이었다. 중학생은 몸무게에 따른 교복변형에서는 유의차가 없었으나, 키에 따른 교복변형은 상의 전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165 cm 이상의 키 집단에서 소매길이, 소매통, 상의 품, 상의길이를 줄이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키는 커졌으나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가슴둘레 등의 증가가 적어, 키에 맞춰 교복을 구입하고 변형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용돈이 많을수록, 소매길이, 소매통,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에서 교복변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유의차가 나타났다. 한편 용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교복변형비율이 전 항목에

Table 5. 중학생의 인구통계특성에 따른 교복변형 (unit : n(%))

인구특성		상의				치마		
		소매길이	소매통	품	길이	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총		61(21.0)	84(28.9)	98(33.7)	98(33.7)	87(29.8)	78(26.8)	92(31.6)
몸무게	45kg미만	13(20.0)	15(23.1)	20(30.8)	18(27.7)	20(30.8)	15(23.1)	17(26.2)
	50kg미만	8(11.9)	15(22.4)	20(29.9)	20(29.9)	18(26.5)	18(26.9)	22(32.8)
	55kg미만	19(27.5)	26(37.7)	31(44.9)	32(46.4)	22(31.9)	23(33.3)	25(36.2)
	55kg이상	18(22.2)	22(27.2)	23(28.4)	24(29.6)	24(29.6)	18(22.2)	24(29.6)
	χ^2	6.438	7.567	7.977	11.642	2.828	8.994	3.048
키	155cm미만	0(0.0)	0(0.0)	0(0.0)	0(0.0)	3(20.0)	1(6.7)	1(6.7)
	160cm미만	24(19.5)	34(27.6)	40(32.5)	41(33.3)	37(29.8)	34(27.6)	36(29.3)
	165cm미만	17(17.0)	26(26.0)	33(33.0)	35(35.0)	28(28.0)	23(23.0)	38(38.0)
	165cm이상	18(39.1)	21(45.7)	23(50.0)	23(50.0)	18(39.1)	19(41.3)	15(32.6)
	χ^2	15.300*	14.340*	16.224*	14.239*	10.070	9.701	9.608
용돈	2만원미만	15(14,2)	21(19.8)	28(26.4)	26(24.5)	26(24.3)	20(18.9)	20(18.9)
	5만원미만	33(21.6)	44(28.8)	52(34.0)	54(35.5)	44(28.8)	39(25.5)	55(25.9)
	5만원이상	11(39.3)	17(60.7)	16(57.1)	16(57.1)	15(53.6)	17(60.7)	14(50.0)
	χ^2	18.888**	22.338***	10.103	11.881	10.797	21.031**	18.022**
용돈만족	부족	41(29.7)	54(39.1)	61(44.2)	61(44.2)	52(37.4)	45(32.6)	53(38.4)
	보통	15(20.8)	19(26.4)	21(29.2)	25(34.7)	21(29.2)	15(20.8)	23(31.9)
	만족	5(6.2)	11(13.6)	16(19.8)	1214.8)	14(17.3)	18(22.2)	16(19.8)
	χ^2	17.215**	19.246***	15.853**	25.749***	12.863*	10.649*	10.998*
의복비	3만원미만	23(14.2)	35(21.6)	38(23.5)	41(25.3)	40(24.5)	28(17.3)	36(22.2)
	8만원미만	22(23.7)	25(26.9)	36(38.7)	34(36.6)	29(31.2)	31(33.3)	34(36.6)
	8만원이상	16(45.7)	24(68.8)	24(68.6)	23(65.7)	18(51.4)	19(54.3)	22(62.9)
	χ^2	18.849***	34.465***	28.726***	22.200***	12.309*	23.173***	25.852***

***p>0.001,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Table 6. 고등학생의 인구통계특성에 따른 교복변형 (unit : n(%))

인구특성		상의				치마		
		소매길이	소매통	품	길이	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총		41(14.4)	127(44.6)	130(45.6)	115(40.6)	45(15.8)	66(23.2)	113(39.5)
몸무게	45kg미만	8(36.4)	12(54.5)	16(72.7)	14(63.6)	6(28.6)	9(40.9)	12(54.5)
	50kg미만	12(18.5)	36(54.5)	33(50.0)	33(50.0)	10(15.2)	15(22.7)	27(40.9)
	55kg미만	14(14.6)	47(49.0)	47(49.0)	41(42.7)	16(16.7)	24(25.0)	39(40.2)
	55kg이상	7(8.1)	30(34.9)	30(34.9)	22(26.2)	13(15.1)	15(17.4)	30(34.9)
	χ^2	13.310*	8.937	12.698*	16.117*	5.772	8.128*	6.374
키	155cm미만	0(0.0)	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60cm미만	15(17.0)	32(36.4)	42(47.7)	39(44.8)	17(19.5)	23(26.1)	31(35.2)
	165cm미만	17(15.6)	56(50.9)	49(44.5)	45(41.3)	15(13.8)	19(17.3)	45(40.9)
	165cm이상	9(11.3)	37(46.3)	36(45.0)	28(35.0)	12(14.8)	22(27.5)	34(42.0)
	χ^2	3.755	6.964	4.427	4.009	9.028	9.736	6.217
용돈	2만원미만	4(7.4)	16(29.6)	21(38.9)	14(25.9)	5(9.4)	14(25.9)	14(25.9)
	5만원미만	23(15.9)	63(43.2)	67(45.9)	60(41.4)	26(17.7)	32(21.9)	62(42.2)
	5만원이상	14(17.7)	47(59.5)	42(53.2)	40(51.3)	12(15.2)	19(24.1)	36(45.6)
	χ^2	4.186	15.710**	4.498	9.617*	14.378**	0.476	10.120*
용돈만족	부족	22(15.4)	68(47.6)	72(50.3)	61(43.0)	26(18.3)	35(24.5)	59(41.0)
	보통	13(16.0)	35(42.7)	40(48.8)	37(45.7)	12(14.6)	17(20.7)	33(40.2)
	만족	6(10.0)	24(40.0)	18(30.0)	17(28.3)	7(11.7)	14(23.3)	21(35.0)
	χ^2	2.143	3.567	8.550	5.991	6.691	1.221	5.500
의복비	3만원미만	10(8.0)	36(28.8)	44(35.2)	44(35.2)	15(12.2)	17(13.6)	39(31.2)
	8만원미만	20(16.5)	67(54.9)	64(52.5)	50(41.3)	21(17.1)	34(27.9)	54(43.9)
	8만원이상	11(30.6)	23(63.9)	21(58.3)	20(55.6)	9(25.0)	15(41.7)	19(52.8)
	χ^2	16.326**	25.086***	10.343*	7.463	9.434	21.109***	11.615*

***p>0.001, **p>0.01,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서 높았으며, 특히 상의 변형에서 유의차가 뚜렷했다. 용돈이 많거나 용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대부분 친구들과 어울리는 기회가 많은 경우로 청소년기의 특성인 소속 집단에 동조성을 중시하게 되어 교복변형이 많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의복비는 교복변형에 가장 큰 유의차를 나타냈으며, 의복비의 지출이 많을수록 전 부위에서 교복변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복비를 많이 쓰는 경우는 옷맵시에 관심이 많으며 결국 자신을 돋보이길 원하게 되므로 하루 일과 중 오랜시간 착용하는 교복착용 시에도 맵시있게 입기를 원하여 변형비율이 높아 졌을 것이다.

고등학생의 교복변형은 상의 품을 줄이는 비율이 45.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매통(44.6%), 상의길이(40.6%), 치마엉덩이둘레(3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의 치수 규격은 키와 가슴둘레에 따라 분류되나, 상의 품과 상의길이를 모두 줄이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고등학생들의 신체치수를 무시한 교복치수와 학생들은 착용 시 여유분이 많지 않기를 원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하의는 키와 허리둘레로 치수를 표시하는데, 치마길이와 허리둘레는 비교적 변형 비율이 낮으나 엉덩이 둘레의 변형율이 높으므로 이로부터도 학생들은 비교적 몸에 밀착하는 형태를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은 신체특성에서 키에 따라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몸무게에서는 소매길이, 상의 품, 상의 길이, 치마 허리둘레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몸무게가 적을수록 교복변형 비율이 높았다. 이는 교복치수가 키를 중심으로 일률적으로 가슴둘레를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성장속도가 줄고 성숙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이지만 개인적인 성숙속도의 차이에 따라 몸무게가 적은 경우에는 여유분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고등학생에서도 신체특성 보다 생활태도에 따른 유의차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용돈에 따라서는 소매통, 상의 길이, 치마 길이, 엉덩이 둘레에서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용돈이 많을수록 교복을 변형하는 비율이 높다. 의복비에 따른 교복변형은 유의차가 가장 뚜렷하여 의복비가 많을수록 소매길이, 소매통, 상의 품, 치마 허리둘레, 치마엉덩이둘레를 변형하는 비율이 높았다.

5. 결론 및 제언

여자 중・고등학생이 자신의 교복에 대한 평가와 교복변형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천지역 여자 중・고등학생 5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 중・고등학생이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교복에 대해 평가를 요인 분석한 결과, 심미성, 쾌적성, 경제성, 관리성과 은폐성으로 분류되었다. 여자중학생과 여자고등학생이 자신의 교복에 대한 평가 점수는 모든 요인에서 낮은 편이다. 은폐성 요인만 3점 이상으로 가장 높으나, 심미성이 가장 낮고, 관리성 또는 쾌적성, 경제성, 은폐성 순으로 높아졌다. 또한 여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복평가요인 중 쾌적성을 제외한 경제성, 관리성과 은폐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 중학생은 심미성, 관리성과 은폐성에서 고등학생에 비하여 평가 점수가 낮으나 경제성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둘째,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평가 유형을 군집분석으로 분류한 결과, 경제적 착용집단, 실용적 착용집단, 심미적 착용집단, 부정적 착용집단, 활동적 착용집단의 5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교복평가 태도 집단에 따라 교복변형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소매길이와 치마 길이였으며, 교복의 심미적, 활동적 평가 집단에서 교복변형비율이 낮았다.

셋째, 교복변형에서 중학생은 상의 품, 상의 길이를 가장 많이 줄였으며, 키가 큰 학생은 소매길이 소매통, 상의 품, 상의 길이를 줄이는 비율이 높았다. 용돈을 많이 쓸수록 소매길이 소매통과 치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변형이 많으며, 용돈이 부족한 집단과 의복비가 많은 집단은 모든 부위에서 변형율이 높았다. 고등학생은 중학생보다 교복 변형율이 높으며, 가장 많이 변형하는 곳은 상의 품, 소매통, 상의 길이 치마 엉덩이 둘레이다. 몸무게가 적은 학생이 소매길이 상의 품, 상의 길이 치마허리의 변형이 많았다. 용돈이 많은 집단은 소매통, 치마길이, 치마 엉덩이 둘레, 상의 길이의 변형율이 높으며, 의복비가 많을수록 소매통, 소매길이, 상의 품, 치마허리, 치마엉덩이 둘레의 변형이 높은 것으로 유의차가 나타났다.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변형은 교육적인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지도 차원으로 매우 신경을 쓰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중・고등학생의 교복평가에 따른 교복변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평가집단에 따른 교복변형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어가는 시기이며, 입시로 인한 과중한 부담 및 교복 착용으로 의복의 선택, 착용과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어머니 또는 언니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각자가 뚜렷이 의복의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여자 중・고등학생은 청소년기의 신체발달과정의 성장기와 성숙기 초기단계로 개인에 따른 성장속도의 차이가 큰 시기이다. 그러므로 교복제작 시에는 키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슴둘레를 변화시킨 한가지 치수만 제작하지 말고, 많은 학생이 속하는 키의 범위에서는 가슴둘레가 다른 두가지 이상의 치수 규격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가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루어 졌지만, 교복에 대한 만족도 특히 심미성이 매우 낮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상의 품과 소매통을 줄이는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청소년 체형에 맞도록 활동적이면서도 비교적 잘 맞는 패턴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며, 신축성을 가진 소재를 사용하여 교복을 제작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임의 표본 추출법에 의한 인천지역 여자 중・고등학교를 2개교씩 선택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서울 및 타 도시 여자 중・고등학생의 교복변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교복변형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설명되지 못한 여자 중·고등학생의 생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은미·박은주 (2003) 의류제품 구매시 소비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류점포 서비스 품질, 의복평가기준 및 의복관여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7**(1), 29-39.

고애란·김양진·심정은 (1999) 여고생의 교복관련 행동과 심리적 특성 및 의복태도의 관련 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3**, 31-41.

권숙희·김혜정 (2002) 제주지역 여고생의 교복 변형에 따른 치수 및 교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4), 401-413.

김미경·이은영 (1991) 의복평가기준의 이론적 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3), 321-334.

김혜경·권숙희·김순자·박은주·서추연·이숙녀·전은경·조정미 (1997) "피복인간공학 실험설계방법론". 교문사, 서울, pp. 136-140.

박정희 (1998) 여고생의 교복착용태도와 의복행동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선·김화순 (1998) 의복태도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2), 279-289.

여의재·이영선 (1996) 구매후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만족도, 상표태도, 재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6), 1027-1038.

이명희·송은영 (2002) 청소년의 자기이미지, 교복변형과 의복선호화의 관계 연구. 복식문화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47-48.

이상희·김현식·손원교 (1997) 남녀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383-395.

이소은 (2001) 남녀 고등학생의 신체이미지와 교복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남녀공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자 (1992) 교복착용여부와 청소년 비행행동 간의 관계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1), 85-96.

이혜경 (2000) 교복변형실태와 교복 디자인 개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내 여고생의 하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앙일보 (2001. 2.16) 교복변형 신체발달에 지장 줄 수도(www.joins.com).

황진숙·안명화·용유진·유승연 (2003) 남녀 고등학생의 교복이미지선호와 교복변형행동의 비교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3), 243-247.

KS K0051 (1999) 한국산업규격 여성복의 치수. 한국표준협회.

(2004년 10월 21일 접수)